

[TBL]

전문가 심사(Peer review)

학습 목표: 전문가 심사 과정 중 학술지 편집인의 리더쉽과 심사평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 1) 투고자 및 심사자에게 편집인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방안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전문가심사를 정의내릴 수 있어야 한다.
- 3) 전문가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4) 심사자의 심사평을 그대로 저자에게 보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5) 여러 심사자의 심사평이 각각 다를 때 해결 방안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6) 전문가 심사 및 심사평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심사 질을 유지하는 방안

전문가 심사(PEER REVIEW)는 학술지 출판에서 가장 핵심의 영역이다. 편집인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투고자와 심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고, 과학적으로 정직한 내용을 잘 선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아 갈 수 있다면 인류의 과학 업적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에 하나이다. 모든 새로운 과학적 원리나 현상은 학술 논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잘 선별하는 장치로 전문가 심사는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논문을 투고하면서 늘 받기도 한다.

이번에 질문을 던진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편집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편집인도 평가를 받는다. 이런 핵심적인 전문가심사는 학회나 단체에서 오랜 기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 온 것이므로, 꾸준히 학술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편집위원, 심사자, 투고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과정에서 참고서로 배부한 전문가심사에 대한 책은 최근에 여러 학술단체에서 심사 과정 중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해결책을 잘 제시하였다[1]. 이런 책과 훈련 과정 모두 편집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증례 1) 1970년대에 우리나라 기생충학 분야에서는 요충의 역학 및 약물치료법에 관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준의 연구 결과를 내었다. 그 때 한 기생충학자는 기생충약물치료로 3 주 간격 3 회 이상 반복 투여하여야 집단에서 요충 퇴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영국에서 발행하는 그 당시 기생충학분야에서 가장 수준 높은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게재 거부였고 사유는 3회 반복 치료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후 이 기생충학자와 가까운 영국의 학자가 우리나라 기생충학잡지에 실린 그 논문을 읽고는 “Lancet에 내어도 충분한 수준의 논문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고 하였고, 그 이후 당시 미국에 있는 기생충학 분야의 최고 학자도 이 논문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기생충학 분야 최고의 교과서에 참고 문헌으로 실었다. 이 논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인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1990년 중반에 다른 기생충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머릿니 치료에 대한 집단 약물 요법에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결과는 반복 치료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런 예를 보기 힘들어서 적용 가능성이 적다는 평으로 ‘게재 거부’ 평가가 왔다. 저자는 단지 조금 더 자세히 원고에 대한 평을 달라고 편집인에게 글을 보냈고, 편집인은 이런 반복 치료가 감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게재 가’ 판정을 내리고 논문을 출판하였다. 그 후 이 논문은 Lancet에서 인용하였다.

1. 이 증례에서 1970년대 우리나라 기생충학자가 국제 학술지에서 ‘게재 거부’를 당한 것은 어느 요인이 작용하였을까?

- 1) 한국이라는 국적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 2) 심사자는 특수한 역학인 요충 역학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 3) 치료법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심사자가 간과하였다.
- 4) 편집인은 심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다.
- 5) 그 당시 그 국제학술지는 투고 논문이 너무 많아 편집인이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것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2. 1990년대에는 왜 심사자가 미국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는데 편집인이 ‘게재 가’ 판정을 내렸을까?

- 1) 발간 초창기라 논문 확보가 필요하였다.
- 2) 한국에서 투고하는 논문이 적어서 투고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 3) 이 학술지가 국제 학술지로 여러 지역에서 유용한 정보 신기를 원하였다.

4) 한국이 OECD국가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수행한 연구를 선진국의 연구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5) 이 논문의 연구 기법이나 결과 해석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주제를 평가하는 것은 독자 몫이라고 여겼다.

3. 최근 논문 심사할 때, 저자 이름과 소속 등을 가리고 oneseid-blind 심사를 하는 곳이 많다. 이런 심사가 심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1) 저자를 알건 모르건 아무 상관없이 심사한다.

2) 저자를 모르므로 편견 없이 평가를 할 수 있다.

3) 저자를 모르므로 마음 놓고 원고를 평할 수 있다.

4) 저자명과 소속을 가려도 내용을 읽어보면 대개 다 알 수 있다.

5)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 보려고 데이터베이스 통하여 주제 검색을 한다.

(증례 2) ‘가’ 학술지 편집인 홍길동선생은 3 명의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한 명이 보통 2 주 내에 심사 마치라고 요청하였지만 한 달이 넘어도 답이 없고 독촉 글월을 보내도 답이 없어, 할 수 없이 다른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는 수정 후 ‘게재 가’ 이어서 저자에게 수정 요구서를 보내고 수정본을 받아서 인쇄소에 넘긴 상태였다. 그런데 답을 하지 않던 보름이 지나 답을 보내왔다. 평가는 ‘게재 불가’였고, 매우 자세히 사유를 적고 IRB 허락 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4. 편집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1)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한다.

2) 원 심사자의 늦은 심사 결과는 무시한다.

3) IRB 관련 사안만 보완할 것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4) 원 심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의견대로 수정 보완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5) 원고는 그대로 인쇄하고 결과는 저자에게 발송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증례 3) 편집인 홍길동선생은 투고된 논문을 3 명의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요즘 투고 논문 수가 급증하고 심사 위원도 매우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어 게재율이 60%로 떨어졌다. 심사자 A, B, C 는 각 논문 번호마다 다른 사람이다. 편집인 판정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4 심사자 재심사 다섯 종류이다.

4.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가 올 때 어떻게 판정하는 것이 좋을까?

| 논문 번호 | 심사자 A | 심사자 B | 심사자 C | 판정 |
|----------|----------|----------|----------|----|
| 2007-83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
| 2007-84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 2007-85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 2007-86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2007-87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5. 투고자에게 바로 보내어도 되는 심사평의 적절한 예는?

- 1) There is no new finding in the paper. It is not worthwhile to consider the paper for acceptance.
- 2) The findings of this paper does not give any merit to the patient care.
- 3) The authors are recommended to refer the specialist in the genetic phylogeny for the description of the paper.
- 4) The English is too poor to be read.
- 5) I am sorry but I can not understand the point of author's argument. It is too redundant.

6. 편집위원회 대상 논문 심사에 대한 6 시간 짜리 워크숍을 개최할 때 다음 중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하면?

- 1) 논문이 투고 양식에 맞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
- 2) 참고 문헌을 적절히 조사하였는지 검색하여 보도록 한다. ()
- 3) 이미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읽고 심사평을 작성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
- 4) 저자에게 바로 보내기에는 적절치 못한 일부 심사평을 공개하여 심사평을 다듬도록 한다. ()

- 5) 심사평이 심사위원보다 각각 다를 때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
- 6) 한 논문에 각각 다른 심사평을 검토하여 그런 심사평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게 한다. ()
- 7) 학술지에 이중 게재 논문 여부를 검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

참고문헌

1. Hames I. Peer review and manuscript management in scientific journals. Oxford, U.K.: ALPSP and Blackwell Publishing; 2007.